

늦은 밤 운행길에 계시며

주체 107(2018)년 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새형의 무궤도전차시운전이 진행되던 때는 늦은 밤이었다.

일군들과 함께 무궤도전차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결만 보아서도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궤도전차를 타고다닐 인민들의 립장에 서서 부족점이 없는가를 다같이 꼼꼼히 살펴보고 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것이여서 제 집안에 들어앉은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긍지스럽고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하시면서 자력갱생의 힘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결과물들을 마주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늘 말하는것이지만 우리는 새것을 만들어내는 데만 그치지 말고 부단히 기술적으로 세련시키고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며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참으로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기에 이렇듯 늦은 밤 운행길에 계시며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것이다.